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12차 회의자료

- 일 시 : 2018. 12. 18.(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9층)
- 참석자 : 윤인석(위원장), 김문수,
김연희, 김이순, 부길만,
송기한, 신안준, 안창모,
오용섭, 이광표(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해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따라 회의 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12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등록	3
2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문화재 등록	15

【검토사항】

3	「동작아트갤러리(서울 구 성무교회)」 문화재 등록 검토	25
4	「인천 초연다구박물관」 문화재 등록 검토	33
5	「광주 금선사 대웅전」 문화재 등록 검토	39

【보고사항】

6	소위원회 결과 및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 157호 「환구단」 및 사적 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 현상변경)	49
---	---	----

심 의 사 항

1.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10.23.)를 거쳐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판종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10장	27.1×36.9 cm	종이	필사	날장 문서 (10장)	1941년	조** (개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29-1	

(2) 추진경과

- 항일독립유산 자체발굴, 지자체 및 관계기관 추천 의뢰('17. 8~12월)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 개최('18. 1. 10.)
 - 동산(動産) 분야 기초 유물목록 47건 중 조사·검토 대상 41건 선정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10. 4.)
 - 조소양 관련 문서류 일부 60건 조사(아래 목록 참고)
 - 조사위원 의견
 - 우선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만 등록을 검토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추가 등록대상 검토
 - 나머지 조소양 관련 문서류 등(1,000여 건 추정)에 대한 해제사업 등 기초 조사를 통해 단계별로 등록 추진 필요

(3) 등록예고 : 2018. 11. 6.~ 12. 5.(30일간) * 의견 없음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10.4.)

- 조소앙이 작성한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은 임시정부에 의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으로 공표된 초안임. 이후 이 강령은 임시정부의 개정헌법에서 법제화된 것은 물론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었음. 이렇게 이 초안은 우리나라 헌법의 초석이 된 문서이므로 응당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000 단국대학교 교수(2018.10.4.)

- <대한민국건국강령 초안>은 조소앙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통해 조소앙이 ‘대한민국건국강령’의 초안자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었음. <대한민국건국강령 초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000 순천향대학교 교수(2018.10.4.)

- 「대한민국건국강령초안」은 조소앙 선생이 직접 붓으로 쓴 문건으로 여러 군데에 줄을 긋고 고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선생의 고심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는 자료임.

○ 000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2018.10.4.)

- 건국강령은 민족통일전선적 입장에서 중국관내 독립운동진영의 전선통일을 지향하는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대규모 토지 및 생산시설의 국유화를 지향하는 등 기본적으로 좌우를 망라하는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구상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오늘날 현실에 주는 의미가 깊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 조사보고서

- 1. 명 칭 :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
-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29-1
- 3. 소 유 자 : 조**(개인)
- 4. 조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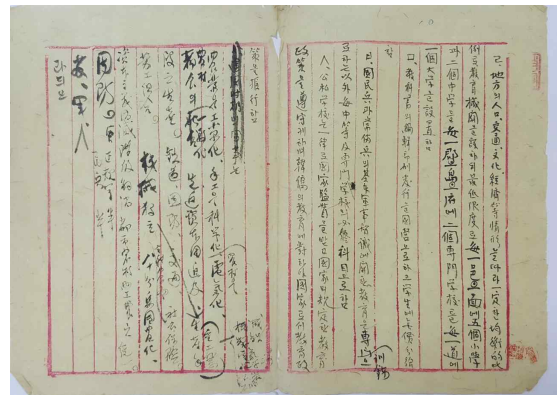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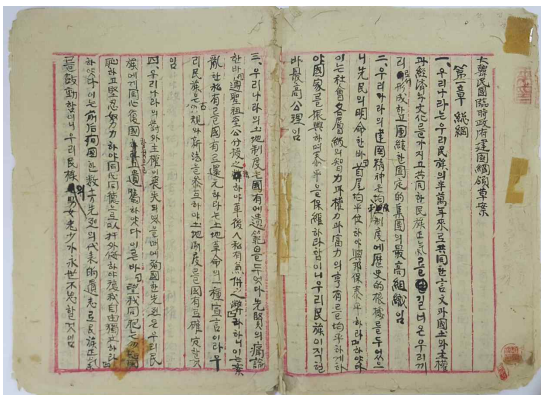
<OOO 문화재 위원(2018.10.4.)>

1) 현상

- 스카치테이프 부착으로 인한 오손(첫째 장)과 결손부분(전장)의 보수필요.

2) 내용 및 특징

-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은 조소앙(趙素昂, 1887~1958)이 작성한 것임. 내용은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한 정치·경제·교육제도 생활권 우위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은 1941년 11월 25일 제19차 국무회의 결의로 건국강령이 통과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2호(1941.12.8) 국무회의 중요기사 사항에서 ‘대한민국건국강령 통과’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23년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조소앙 위원이 기초하여 제출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약간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하다.”와 같이 공표되었음. 이렇게 조소앙이 처음 만든 이 강령은 임시정부의 건국이념으로 수용되었던 것임. 이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한 배경은 민족운동세력들을 임시정부라는 하나의 구심체 안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국가상을 제시하는데 있었던 것임. 조소앙 친필의 이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은 『소양선생문집(상)』(154-173면)에 실려 공개되어 있음.
- 이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은 10행이 판각된 목판으로 좌우 2곳을 주색(朱色)으로 찍은 종이에 묵서(墨書)되어 있음. 여러 날에 걸쳐 쓴 탓인지 필체와 먹색이 일정하지 않으며, 1행은 대개 20-30자 정도로 일정하지 않음. 현재 모든 장은 글이 있는 쪽을 내면으로 하여 반으로 절첩되어 있음. 손상이 있는 부분은 스카치테이프가 붙여져 있기도 하고, 테이프는 제거하였으나 접착부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함. 매 장의 오른 쪽 아래에는 소장자의 것으로 보이는 「趙萬濟」 등 도장 2개가 찍혀 있음.



<사진1>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 (첫째 장과 마지막 장)

- 조소앙이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을 작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민족 사회 인류의 모든 범주에서 사상의 대립을 극복하는 통합이념의 ‘전형’을 제시하여 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은 삼균주의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의 방침, 계획을 제시하면서 독립운동자들을 총동원하려는 의도도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아무튼 “조소앙의 일관된 논리는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으로 그것은 자신이 구상한 삼균사회 건설이라는 이상적 목표와 관련된 것이었다.”
- 조소앙의 본명은 용은(鏞殷), 자는 경중(敬仲)이고, 소양(素昂)은 호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헌장과 임시의정원법을 기초하였고, 1920년대 후반 삼균주의를 창안하여 독립운동의 대동단결 이념과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으로 정립시켰음. 6·25전쟁 중 납북되어 1958년에 순국하였으며, 198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음.
-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은 총강(總綱) 9개항, 복국(復國) 9개항(10개항으로 구분될 수 있음), 건국은 8개항(9개항으로 구분될 수 있음) 등 총 3장(章) 26개항(28개항으로 구분될 수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는 달리 공표된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전체의 장수(章數)는 3장으로 동일하나 항목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그래서 초안과 공표된 강령을 대비하면, 최종적으로 수정된 면면을 확인할 수 있음. 제1장 총강은 건국과정에서 수행 추진할 과제들에 대한 근거를 민족사에서 찾아내어 그 당위성 및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었음. 제2장 복국은 독립 선포이후 국호를 정한 뒤 적과의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을 제1기, 국토수복과 현 기구의 국내전환을 제2기로 나누었음. 끝으로 헌법과 중앙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자치제도, 군사, 외교 등에 관한 법규를 반포한다는 내용임. 제3장 건국은 건국의 단계와 기본원칙으로 헌법상에 규정할 인민의 기본권리 및 의무,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임.
- 이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은 임시정부가 광복이후 건설할 민족국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었음. 여기에는 광복이후 국민전체가 균등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정치·경제·교육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마련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임.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의 구조는 형식상으로는 1924년 4월 쑨원(孫文)이 작성 발표한 중국 국민정부의 건국대강을 참고하였다고 함. 그러나 공표된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은 복국에 대한 방략 및 건국에 대한 방략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함.

3) 기타(참고자료)

- 김기승, “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8(1), 2009.
- 김인식, “삼균주의 ·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임시정부 절대옹호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권, 2011.3.
- 신우철, “건국강령 연구”, 『중앙법학』 제10집 1호, 2008.4.
- 신우철, “임시정부기·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중앙대 법학논문집』 제41집 제1호, 2017.
- 한시준, “대한민국 ‘건국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 『한국근대사연구』 46집, 2008.9.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소앙이 작성한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은 임시정부에 의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으로 공포된 초안임. 이후 이 강령은 임시정부의 개정헌법에서 법제화된 것은 물론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었음. 이렇게 이 초안은 우리나라 헌법의 초석이 된 문서이므로 응당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음

<OOO 단국대학교 교수(2018.10.4.)>

1) 현상

-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부분적으로 종이가 떨어져 나가는 등 손상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대한민국건국강령 초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무부장으로 활동하던 조소앙(1887. 4 - 1958. 9)이 작성한 것임. 조소앙은 외무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물로, 광복 후 건설한 독립국가에 대한 계획으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기초하였음.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41년 11월 28일 국무위원회 명의로 공포되었음.
- ‘대한민국건국강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 후 국가건설에 대한 계획을 총정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조소앙이 창안한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균등사회를 건설하여 민족 최대 다수가 균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있음.
- <대한민국건국강령 초안>은 해방 후 조소앙이 가지고 들어온 ‘조소앙문서’ 안에 들어 있었음. 조소앙이 6.25전쟁 때 납북된 후, 그의 아들인 조인제가 소장하고 있었음. 조인제가 사망한 후 ‘조소앙문서’는 대부분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건국강령 초안>은 조인래가 특별히 보관하고 있음.

3) 문헌자료

- 삼균학회, 『소앙선생문집』 상 하, 햇불사, 197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조소앙편 1 - 4), 1997.
- 홍선회, 『조소앙 사상 - 삼균주의의 정립과 이론체계』, 태극출판사, 1975.
-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 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지영사, 2003
- 한시준, 「조소앙 연구 -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사학지』 18, 1984.
-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 후 민족국가건설론 -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 한시준, 「조소앙의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10, 1992
- 김기승, 「해방 후 조소앙의 국가건설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2004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대한민국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공포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에 게재되었음. 이후 ‘대한민국건국강령’의 내용은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자료집에 수록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음. 이를 통해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기초한 인물이 조소앙이라는 점이 밝혀졌음. <대한민국건국강령 초안>은 조소앙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통해 조소앙이 ‘대한민국건국강령’의 초안자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었음. <대한민국건국강령 초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OOO 순천향대학교 교수(2018.10.4.)>

1) 현상

- 조소앙 선생이 세로줄이 그어진 종이에 직접 붓으로 쓴 문건으로 종이의 접힌 부분과 바깥 주위에 일부 손상이 있으나 붓글씨를 쓴 부분은 손상이 없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대한민국건국강령 초안」은 조소앙 선생이 직접 붓으로 쓴 문건으로 쓰다가 지우고 다시 고쳐 쓴 흔적도 남아 있어 대한민국건국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임.
- 조소앙(1887~1958) 선생은 1917년 7월 「대동단결의 선언」을 기초하여 해외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통합과 국민주권주의에 의거한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음.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제1회 임시 의정원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하는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 독립외교를 전개하였으며, 상해로 돌아와 독립운동을 계속하였음.
- 조소앙 선생은 동양과 서양의 종교와 철학, 일본, 중국, 유럽의 정치제도에 대한 체험적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의 방략과 신국가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그 결과 그가 제시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라는 삼균제도의 건국 원칙이 1930년 한국독립당이 창당되면서 당강과 당책으로 채택되었음. 이후 중국 관내의 여러 독립운동 정당이 삼균주의를 독립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음.
- 1940년에는 우익 계열의 여러 정당이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주적 정당으로 활동하였음. 조소앙 선생은 1941년 5월 한국독립당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독립당 제1차 전당대표대회 선언」을 기초하였는데, 여기서 ‘삼균제도의 건국강령’을 제시하면서 한국독립당의 신국가 건설 계획을 복국, 건국, 치국의 단계로 나누어 구체화하였음. 이어서 조소앙 선

생은 삼균주의에 의거한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을 체계화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기초하였음. 조소앙 선생이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회에서 수정을 거친 후 국무위원회 명의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음.

-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 7개항, 제2장 복국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등 모두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강에서는 삼균제도에 의한 민족국가 건설의 당위성과 원칙을 밝혔음. 제2장 복국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의 과제와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 건국에서는 건국 단계에서 실행할 삼균주의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1942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좌우연합정부적인 성격을 띠면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대한 임시의정원에서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음. 의정원에서의 「대한민국건국강령」 수정 작업은 194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으나 최종 수정 작업이 완결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음. 그 결과 1941년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향은 물론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방향과 방침을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건으로서의 역사적 의의가 있음.

3) 문헌자료

- 삼균학회, 『소앙선생문집』 상, 햇불사, 1979.
-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한국독립운동자료집-조소앙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3 - 중경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조동걸,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우사 조동걸 저술전집 08-대한민국임시정부』, 2010, 역사공간.
-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지영사, 2003.
- 김기승,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론가 조소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4) 기타

- 1945년 8.15 광복 이후 중국 중경에서 활동하던 임정 요인들이 귀국할 때, 임정 외무부장을 맡고 있던 조소앙 선생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임시정부 관련 문서와 자신이 저술 및 책자 등을 모두 갖고 귀국하였음. 1950년 6.25전쟁으로 조소앙 선생이 납북된 후에는 후손이 조소앙 선생 관련 자료를 보관하면서 관리하였음. 이 자료들은 1979년 삼균학회에 탈초 작업을 거쳐 『소앙선생문집』(상, 하)로 간행되었으며, 1997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의해 영인 간행된 바 있음. 「대한민국건국강령 초안」은 『소앙선생문집』(1979)에서는 영인본으로, 1997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된 자료집에는 전사본이 영인되어 간행되었음. 『소앙선생문집』에 수록된 「대한민국건국강령초안」은 바로 이 자료를 영인한 것임. 다만 이 자료에는 후손인 소장자들이 보존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자료의 우측 하단에 도장 두 개를 찍었으며, 상단에 페이지 숫자를 추가적으로 기록하였음.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소앙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직접 참여하였고 광복 직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요한 지도자로 활동하였음. 특히 선생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하였으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건국 이념을 체계화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기초하는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로 활동하였음.
- 「대한민국건국강령」은 한국 독립운동의 지도 이념과 건국 계획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문건으로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할 때 헌법 제정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음.
- 「대한민국건국강령초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에서 수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을 뿐으로 거의 그대로 공식적 문건으로 채택되었음. 이후 「대한민국건국강령」은 광복 이후까지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적 건국강령으로 존재하고 있었음.
- 「대한민국건국강령초안」은 조소앙 선생이 직접 붓으로 쓴 문건으로 여러 군데에 줄을 긋고 고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선생의 고심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는 자료임. 종이의 바깥 부분에 일부 손상이 있으나 강령 초안의 내용은 전혀 손상이 없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음.
- 따라서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주요한 업적을 남긴 역사적 인물이 직접 쓴 유일무이한 문건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대한민국건국강령초안」은 종이의 바깥 둘레 부분이 손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보존 처리가 시급함.
- 조소앙 선생이 1945년 귀국하면서 가져 온 임시정부 및 개인의 문서는 방대한 분량이며,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 이미 자료집으로 공간된 『소앙선생문집』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소앙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들 외에도 후손들은 소중한 자료들을 대량으로 소장하고 있음.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일부만 목록화되어 있을 뿐, 많은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보관되고 있음.
- 이번의 현지 조사 결과, 조소앙 선생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한 후 임정 헌법, 임정 공문서, 조소앙 서간, 원고,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등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음. 그러나 조소앙 선생 관련 자료 전체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일부만 문화재로 등록한다면 차후 문화재 등록의 체계가 미흡해지고 주요한 자료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가장 역사적 가치가 높은 상징적인 자료인 「대한민국건국강령초안」 하나만을 등록한 후, 차후의 문화재 등록 작업은 조소앙 선생 자료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됨.

7)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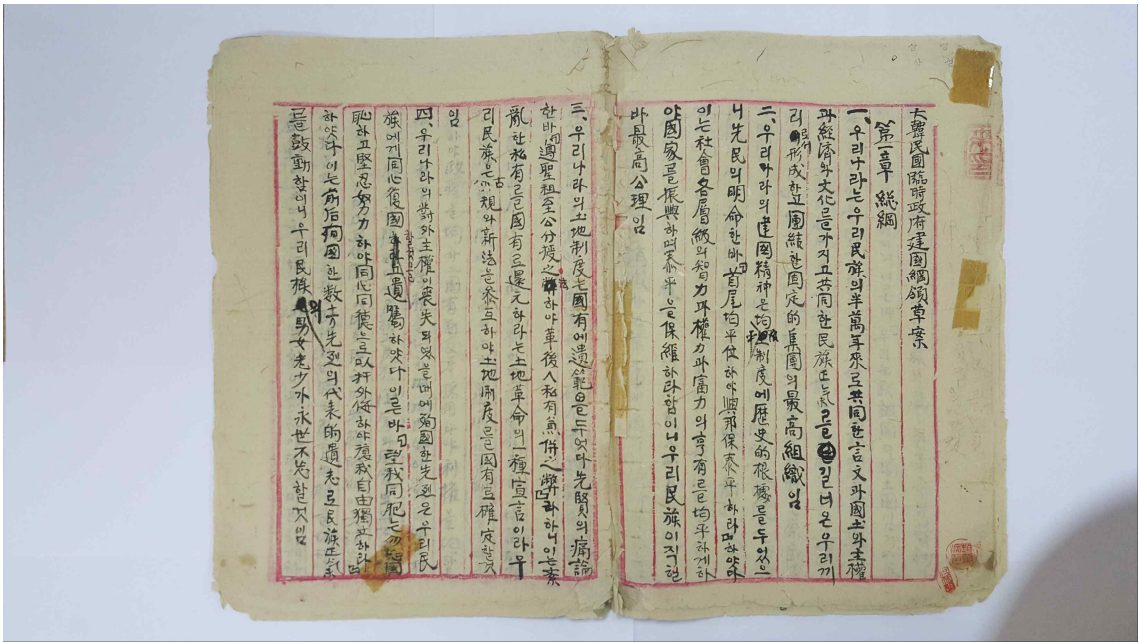
<OOO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2018.10.4.)>

1)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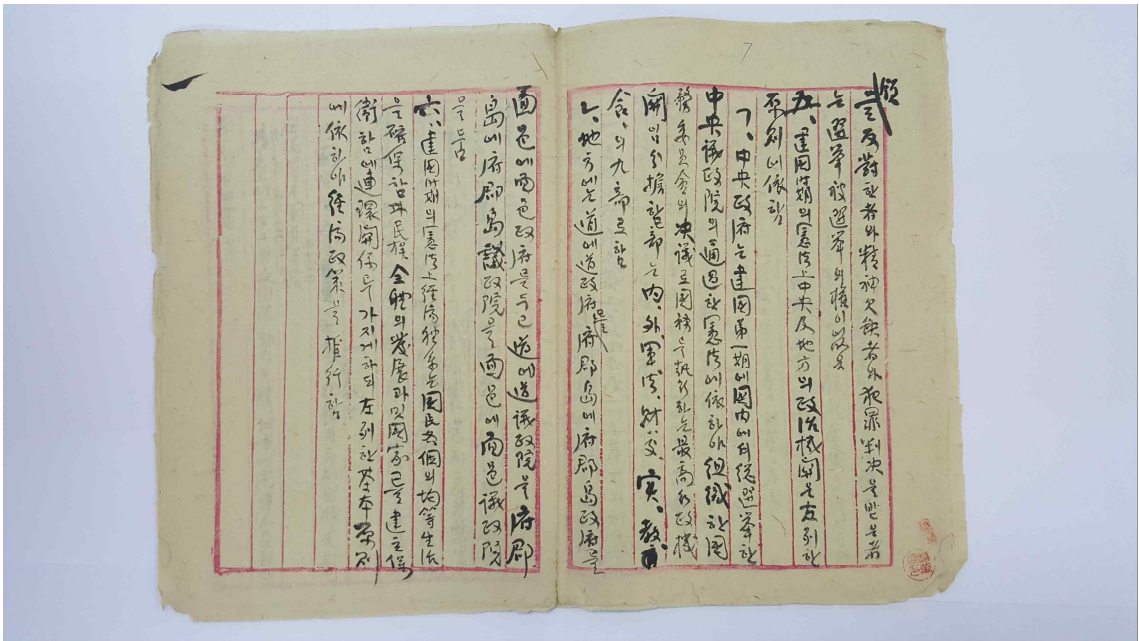
- 많이 남아서 조속한 보존 처리가 시급함
- 1941년 11월 28일 중국 중경에서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초안이며,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음
- 건국강령 초안은 정식으로 공포된 건국강령과는 자구나 단어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며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인 골격은 동일함, 다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이 자료는 원래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했던 조소앙(趙素昂, 1887- 1958)이 1945년 환국 시 가져왔던 것으로 현재는 손자가 소장하고 있음
- 소장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 외에도 조부 조소앙이 1945년 환국시 가져왔던 상당히 많은 문서, 즉 이른바 ‘소앙문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문화재 등록이 시급한 실정임
- 다만 일단 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서 전체의 현황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제 작업이 필요함

2) 내용 및 특징

-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에 제정·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이념이며 강령 기초자는 임시정부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이던 조소앙임
- 건국강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 정부, 사회를 건설하려 했던가를 보여주는 선언임
-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하고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와 이시영, 조성환, 조소앙, 박찬익, 차리석 등 6명의 국무위원 명의로 공포되었음
- 건국강령을 기초로 삼아 임시정부는 1944년 2월 최종적인 임시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광복 후 1948년의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었음
- 임시정부는 이미 만주사변 직전에 조소앙의 제창으로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했는데, 삼균제도란 정치·경제·교육에 있어서의 균권·균부·균학 및 인균·족균·국균을 지향한 것으로 그것의 구체화된 형태가 바로 건국강령임
- 건국강령의 내용은 총강·복국·건국의 3장 2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강에서는 건국정신을 삼균제도에서 찾았고, 토지의 국유화, 순국선열의 유지, 3·1운동과 임정수립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삼균제도가 건국이념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온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음
- 복국에서는 3시기로 나누어 각각 광복의 실천방침과 그 실행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음, 건국도 3단계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그외에도 건국에 따르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해방과 함께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의 수권기관으로서의 골격까지도 구비하려는 원대한 이상을 천명했음
- 건국강령은 민족통일전선적 입장에서 중국관내 독립운동진영의 전선통일을 지향하는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대규모 토지 및 생산시설의 국유화를 지향하는 등 기본적으로 좌우를 망라하는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구상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오늘날 현실에 주는 의미가 깊음



국강령 초안 제1면



국강령 초안 마지막 면

3)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 지양사, 2003.

4)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2.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10.23.)를 거쳐 등록 예고한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희대학교
- (2) 대상문화재
 - 명 칭 : 경희대학교 본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소 유 자 : 학교법인 경희학원
 - 수 량 : 1동(건축물대장 : 건축면적 1,859.26㎡, 연면적 7,083.57㎡)
*1956년 건축된 중앙부만 등록(중앙부 실측면적 : 1,173㎡)
 - 건립시기 : 1956년 준공, 1975년 증축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등록예고 : 2018. 11. 6. ~ 12. 5.(30일간) * 의견 없음
-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전문위원회(2015.5.1)

-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로, 교육시설 또는 대학 건물로서는 현재까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된 유사 사례가 없는 독특한 건축양식과 기법을 적용하였음

○ 000 문화재전문위원회(2015.5.1)

- 경희대 본관은 삼각형의 박공지붕을 중심으로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였으며, 태극과 무궁화를 활용한 주두를 구성하여 한국적 고전주의 건축을 구현한 건물로서 의미를 지님

○ 000 문화재전문위원회(2015.5.1)

- 초창 시 이후 1975년대 증축 이후에도 그 변형은 찾아보기 힘들며 학교의 상징적 건축물로 보존관리에 학교측의 건물관리가 철저하다고 사료됨

마. 2차 추가조사 검토의견(2018.10.10) 문화재위원 000 / 전문위원 000

- 경희대학교 본관은 2015년 5월 1일 관계전문가 3인이 현장조사하고 2015년 5월 26일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검토한 사안임.
- 당시 검토 결과 교육시설 전수조사 후 상대적 비교평가를 사유로 보류되었으며, 2017년 근현대 교육시설 일체조사 결과 A등급(등록검토 대상)으로 평가되었음.
- 2018년 추가 현장조사 결과 2015년 현장조사 당시와 비교하여 건축물 내외부에서 변경되거나 등록조사보고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상과 같이 2015년 현장조사 관계전문가 3인 모두 등록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7년 근현대 교육시설 일체조사 결과 등록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2018년 추가 현장조사 결과 2015년 당시와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단, 2015년 현장조사 관계전문가 3인이 등록범위에 대해 1956년 완공된 건물 중앙부만 등록, 1975년 증축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건물 전체 등록, 건물뿐만 아니라 전면 광장까지 포함하여 등록의 3가지 안을 제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추가 조사 의견에 대해 1차 현장조사(‘15.5.1.)에 참여한 전문가(000, 000) 모두 동의하였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경희대학교 본관’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2. 용 도 : (현) 교육연구시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4. 소유자 : 학교법인 경희학원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중앙부 1956년, 양측 익부 : 1975년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859.26㎡, 연면적 7,083.57㎡
- 층수(높이) : 지상 5층 / 지하 1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5.5.1) >

1) 개요

- 경희학원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1956년 완공된 경희대학교 본관 건물로 경희대학교의 상징적 건물
- 고대 그리스식 주범에 바탕을 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건축원형의 보존관리 상태가 양호
- 교육시설 또는 대학 건물로서는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서 등록된 유사 사례가 없는 독특한 건축양식과 기법을 적용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대학 본관으로서 상징성, 장엄성, 기념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 대칭성, 정면성 등을 강조하며 서양식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건축
- 전면 중앙의 원형 광장과 분수대 설치, 정면 중앙의 높은 진입계단, 정면 중앙의 대형 열주랑 현관 등에 의해 건물의 정면성과 대칭성을 의도적으로 강조
- 외관에서는 페디먼트(pediment), 열주랑(peristyle), 주범(order), 엔타블레춰 등 고대 그리스 건축기법이 특징적이며 내부에서는 천장의 정교한 플라스터 장식이 특징적
- 실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지만 외관은 서양식 석조 양식으로 건축하였으며, 고대 그리스 코린트식 주범을 모방하고 주두에 태극과 무궁화 문양을 새긴 주두를 설치
- 1956년 7월 중앙부를 최초 완공하였고 1975년 2월 양측 날개부를 증축, 완공하여 대칭적 형태를 완성
- 건물 내부 1층 현관, 2층 총장집무실 및 각층 복도의 천장에 장식된 플라스터 장식은 문양이 매우 정교하고 화려한 기법을 적용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축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학 본관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대학의 상징적, 중심적 건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건축원형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
- 그 동안 대학측에서 본관으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왔으므로 특별히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부분은 거의 없음
- 외벽 창호, 내부 천장, 화장실, 냉난방 설비, 전기통신 설비 등은 현대적 재료와 공법으로 개보수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학측에서 본관 건물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본관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 관리할 예정이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매우 양호
- 대학 캠퍼스 내에서 주변에 여유공지를 확보하고 조경이 충분하므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주변환경도 양호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학측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관 용도로 활용, 보존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계획은 건물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키는 동시에 건축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대학측에서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대학 본관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 보존, 관리한다는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 현재로서는 전체 건물중 1956년 완공된 중앙부만이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이 되지만, 등록될 경우 1975년 완공된 양쪽 날개부에 대해서도 건축원형의 지속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대학건물로는 서울대학교 구공과대학 본관 및 교사, 부산대학교 구본관,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 등 14건 정도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상태
- 사적으로는 구서울대학교 본관, 고려대학교 본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아펜젤러관, 스텀슨관 등이 지정된 상태
- 현재 대학건물 등록문화재 중에서는 경희대 본관과 같은 고대 그리스식 주범에 바탕을 둔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등록문화재는 아니지만 서울 한양대 본관(1957년 건축)이 경희대 본관과 유사한 건축양식으로 평가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경희대 본관은 고대 그리스식 주범에 바탕을 둔 신고전주의 양식 건물이며, 교육 시설 또는 대학 건물로서는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유사 사례가 없는 독

- 특한 건축양식과 기법을 적용
- 현재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장래 문화재로서 활용계획의 구체성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희대 본관은 등록문화재로서 등록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며, 단 등록범위는 1975년 증축, 완공된 양측 날개부는 제외하고 1956년 건축된 중앙부만을 포함하도록 함
- 외관에서는 정면의 열주랑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이 필수적
- 내부에서는 1층 주출입구 현관 및 계단, 천장의 플라스틱 장식, 복도 내벽의 목재창호, 설립자 집무실 등의 보존이 필요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건물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속하기 위해 본래의 명칭이자 현재의 명칭 그대로 ‘경희대학교 본관’으로 등록함이 타당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5.5.1) >

1) 개요

- 경희대학교 본관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진리의 탐구와 인격적 인간을 육성하는 전당으로서의 경희대학교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1953년 착공하여 1956년 7월 준공하였고 1975년 2월 증축을 하였다. 초기 본관 전면에는 14개의 원주로 입면을 구성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14개의 행정구역을 상징하여 14개 도에서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적 동량을 육성한다는 교육입국의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고 한다. 본관 앞 정원과 분수대 공원 그리고 경희대의 상징인 사자상과 어우러져 경희대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기본적인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마감은 석조로 하였다. 1956년 준공 시에는 삼각형의 박공(pediment) 아래 전면에 7칸을 갖는 8개의 원주와 그 뒤로 6개의 원주를 배치하여 총 14개의 원주를 설치하였다. 3각형의 페디먼트를 갖는 방식은 향후 1975년 증축 시에도 이어져 중앙과 양쪽으로 박 공면을 강조하여 경희대학교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중앙과 양쪽의 익부를 차이가 있게 하기 위해 중앙부는 8칸 구성으로 하였고 양익부는 7칸씩으로 구성하였다. 원주의 높이는 16.3 m 직경은 1.36 m에 달한다. 이러한 기둥의 높이로 건물이 전체적으로 기둥이 수직적으로 강조된 느낌이다. 주두부분의 장식은 코린트식 구성의 주두에서 벗어나 태극과 무궁화를 응용하여 조각 하였다. 경희대학교에서는 그리스의 코린트식 건축법을 한국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삼각형의 페디먼트에는 밝은 사회, 평화세계, 문화세계를 창조한다는 경희대의 미래를 상징하는 부조 조각이 있다. 경희대 본관의 특징 중 하나는 내부 천정 몰딩 등이 석고 플라스틱 장식이므로 이루어져 독특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경희대 본관은 1953년 착공하고 1956년 준공한 이후 1975년 2월 증축을 하였다. 이

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비교적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 환경

- 경희대 본관은 경희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의지가 많고 보존 및 활용의 여건이 좋다고 생각한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한국인 건축가 박길용에 의한 고려대학교 본관, 서관, 대학원 건물이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석조건축과는 또 다른 건축으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경희대 본관은 3각형의 박공지붕을 중심으로 정면 8칸의 중앙과 양쪽의 7칸씩 구성을 통해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또 태극과 무궁화를 활용한 주두를 구성하여 한국적 고전주의 건축을 구현한 건물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 내부는 천정 등에 석고플라스터로 되어 경희대 본관 만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희대학교의 대학 이념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만 등록 시 처음에 준공하였던 부분과 1975년 2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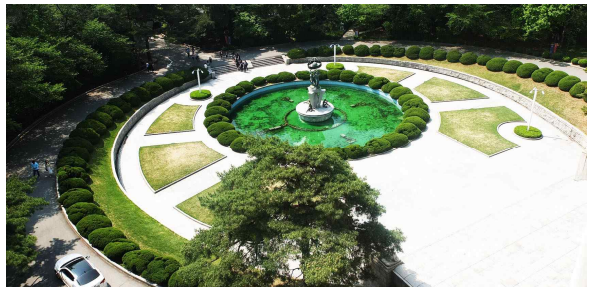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경희대 본관 (증축한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등록을 권장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5.05.01) >

1) 개요

- 본 건축물은 경희대학교를 상징하는 본관(본부) 건물로 서양의 코린트 양식을 도입하여 이 학교의 설립자가 구상하여 지은 건축물이다. 대학의 건축물은 일반 상업적 혹은 주거 건축물처럼 비영구적 건축물이 아니라 백년대계의 건축물로서 영구적 존치라는 원칙으로 볼 때 시대의 건축 흐름에서 벗어나 역사적 건축양식에서 그 모티브를 찾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 1950년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0년대계의 교육시설로 이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로 하여금 시대적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사료됨.
1970년대 양쪽 날개부분을 증축하여 현재와 같은 우람한 건축물로 완성하여 우람한 학교 본관건물로 세계적인 사례와 같이 발맞추어 가려는 설립자의 의지가 엿보임
- 건축물의 앞 정원과 분수대공원도 등록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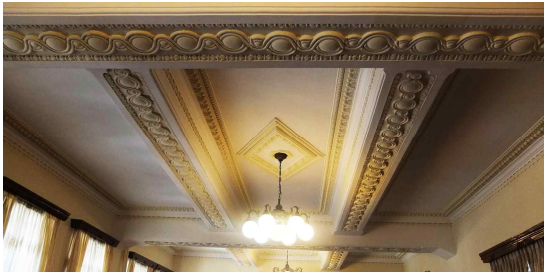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 코린트 양식, 석재마감, 열주 건축물, 좌우 대칭 존엄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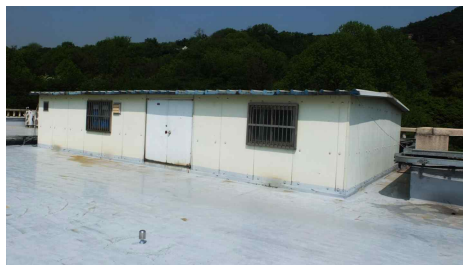
건축물의 내부에 수점의 그림(동양화)가 걸려 있으며 이를 등록문화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검토 필요, 혹은 별개의 문화재로 등록시킬 것인가 검토 필요.

천장부분의 몰딩의 경우 연륜에 의해 노후화 및 박리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관리 철거 부분으로 주지 필요.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초창 시 이후 1975년대 증축 이후에도 그 변형은 찾아보기 힘들며 건물관리가 철저하다고 사료됨. 다만 옥상(5층)에 있는 통신실 및 창고(좌우 2개동, 가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혹은 등록문화재에서 제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종합대학 안의 학교 본부로 학교의 보존관리가 철저하고 캠퍼스 내에 위치하여 환경은 우수하다고 사료됨, 특히 학교의 상징적 건축물로 보존관리에 학교측의 철저함이 있다고 사료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매우 적합함

6) 등록가치의견

- 본 건축물 전체 및 건물 앞 정원과 분수대, 뒤쪽 굴뚝 포함 등록이 가하다고 사료됨.
- 건물 내부의 동양화 그림 수점(검토 필요)
- 몰딩 및 천장 등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검 토 사 항

3. 「동작아트갤러리(서울 구 성무교회)」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동작구 소재 「동작아트갤러리(서울 구 성무교회)」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작아트갤러리(서울 구 성무교회)」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8.11.30.)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 (2) 대상문화재 : 동작아트갤러리(서울 구 성무교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용도 : 전시시설
 - 소유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 관리자 : 동작구청장(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392.96㎡, 연면적 413.71㎡
 - 건립시기 : 1964년
 - 구조 :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 (3) 검토대상 : 문화재 등록 검토(종답 포함 여부, 등록 명칭)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OOO 문화재위원(2018.11.30.)**

- 한국공군의 핵심시설중 하나인 옛 공군사관학교 내 성무교회는 종교문화의 요람으로 그 상징성이 매우 큼
- 당시 급경사를 이루는 지붕면을 갖는 교회건물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고 긴 목부재를 사용한 ‘ㄸ’자보가 내부에 연속적으로 노출되고 박공면의 십자가 장식과 스테인드글라스(현재는 가려져 있음)는 종교 건물로서 그 특징을 이룸
- 교회와 관리동 외에 종탑과 굴뚝도 등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OOO 문화재위원(2018.11.30.)**

- 동작아트갤러리는 본래 1964년 공군사관학교 상무교회로 완공된 건물로 현재는 보라매공원에서 과거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
- 상무교회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높은 급경사 지붕과 내부공간에 의해 기독교의 수직성을 상징적,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교회건축의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조형적 건축기법을 구사
- 상무교회가 2013년 동작아트갤러리로 리모델링, 개관되면서 일부 변형되었지만, 예배당으로서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보존상태가 양호
- 이상과 같은 역사적, 건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기본적 건축형식과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현재 철거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OOO 문화재위원(2018.11.30.)**

- 공군사관학교 내 종교시설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공군사관학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증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높으며, 현대 종교건축으로서의 가치도 높음
- 현대건축 1세대에 속하는 최창규선생의 작품이라는 점도 등록문화재 등록의 가치를 더하는 부분이며, 최창규는 작품보다는 글과 건축가협회 활동을 통해 건축계에 족적을 남긴 분으로, 현존 작품은 많지 않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등록범위는 교회 1동(종탑 포함)으로 함 *굴뚝은 추가 조사 후 등록 검토
- 문화재 명칭은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로 함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동작아트갤러리 (구) 성무교회
2. 용 도 : (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원) 종교시설(교회)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396-29)
4. 소유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관리자)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64년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건축면적 392.96㎡, 연면적 413.71㎡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2018.11.30.) >

1) 개요

- 성무교회는 옛 공군사관학교 내 건립된 교회로 1961년부터 공군대학의 위치에서 건물을 마련하여 종교활동을 해 오다가 1964년 현 위치로 신축이전
- 1964년 7월 22일 대방동 옛 공군사관학교에서 공사교회로 준공. 당시 허경삼 군목 실장(소령)의 건의로 교회당 건물건립 계획에 착수하여 미공군참모총장(Le May 대장), 미공군군목장(Robert P. Taylor 소장)과 국내외 기독교 신자들의 성금으로 건립
- 외형은 지붕면이 가파른 'A'자형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 소재하고 있는 미공군사관학교 교회를 참조하여 건축됨. 설계는 신진건축사사무소에서 시공은 극동건설주식회사가 담당
- 2012년부터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받아 동작구에서 시화전시, 대관 등의 문화시설로 활용
- 30여년간 공군 조종사를 배출한 대방동 공군사관학교(1958-1986) 교내에 설립된 (구)성무교회는 당시 공군장교들의 결혼식 장소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이며,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미사도 거행되는 등 대방동 옛 공군사관학교에 남아 있는 역사적, 종교적 가치가 있는 건물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물은 정면이 남향으로 평면은 'T'자 형태로 후면에 관리동이 위치하고 정면에 교회가 연결된 형태. 교회 평면은 11.7m×19.8m 규모의 장방형으로 목재로된 '스'자보의 배치에 따라 6개베이를 이루며 정면출입구 안쪽 좌우측에 준비실을 두고 상부에 중2층을 설치. 관리동에 인접한 벽쪽에 강단이 위치. 관리동 좌측에 굴뚝이 위치하고 정면의 좌측에는 종탑이 위치

- 교회의 정면은 전면이 'A'자형 박공벽 형태의 적벽돌조적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에 캐노피가 있는 현관이 위치. 캐노피 하부는 자연석을 붙여 마감. 관리동은 적벽돌조적으로 평지붕구조임
- 교회내부의 '스'자보는 3.3m 간격으로 5개가 노출된채 배치되어 있고 꼭지점까지의 높이가 15.46m에 이르고 있어 '스'자보는 상하 2개의 부재를 이음하여 철물로 보강하고 상부는 철물로 긴결하여 구조적 안정을 이루고 있음
- 창문은 눈높이 위로 수평창이 벽면에 따라 길게 배치되고 좌우측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위치. 강단 좌측에 관리실로 연결되는 내부분이 위치
- 종탑은 단면의 형태가 십자(+)형태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상부에 종을 설치하여 조형적인 특징을 이룸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아트 갤러리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마감재료가 부분적으로 변형되고 뒤쪽 박공부 위 스테인드글라스가 외부마감으로 가리워져 있으나 교회와 관리동 전체의 건축형식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임
- 2013년 전시실 및 세미나실로 리모델링 실시하여 강단의 형태, 창호 등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으나 역사사진자료를 통해 원형을 추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공군에서 서울시와 동작구에 옛 공군사관학교내 역사적인 상징 건축물로 원형보존을 요청하였고 2012년부터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동작구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성무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을 공원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공군 당국의 깊은 관심과 동작구의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가 큼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이미 2012년부터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군중 내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등록문화재 제674호)가 유일하나 (구)성무교회는 공군의 상징적인 교회건물이며 건물의 조형적 특징이 독특함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한국공군의 핵심시설중 하나인 옛 공군사관학교 내 성무교회는 종교문화의 요람으로 그 상징성이 매우 큼
- 당시 급경사를 이루는 지붕면을 갖는 교회건물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고 긴 목부재를 사용한 '스'자보가 내부에 연속적으로 노출되고 박공면의 십자가 장식과 스테인드글라스(현재는 가리워져 있음)는 종교 건물로서 그 특징을 이룸
- 교회와 관리동 외에 종탑과 굴뚝도 등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 000 문화재위원(2018.11.30.) >

1) 개요

- 동작아트갤러리는 위치하고 있는 보라매공원은 본래 공군사관학교, 공군본부, 공군대학 등 공군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었던 자리로 1985년 공군사관학교 이전을 계기로 보라매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공군대학, 1991년 공군본부도 각각 이전
- 동작아트갤러리는 본래 1964년 건축된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건물을 2012년 리모델링하여 2013년 개관되었으며,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현재 활용 중
- 성무교회는 본래 1964년 공군사관학교 교회로 완공되어 천주교, 개신교 예배당으로 사용되었으며, 1985년 공군사관학교 이전 후 서울시에 인수되어 창고 등으로 사용되다 2013년 동작구에서 동작아트갤러리로 개관
- 공군사관학교가 1958년 현재의 보라매공원에 자리 잡은 후 임시용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 당시 미국 공군참모총장 르 메이(Le May) 대장 등 미국 공군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성무교회를 건축
- 현재 동작아트갤러리 인근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이 동작아트갤러리를 철거하고 병원을 증축,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중이며, 이에 공군측에서는 공군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건물로서 보존을 요청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공군사관학교 20년사(1974년 발간) 내용에 의하면 구 성무교회는 1964년 3월 14일 기공하여 동년 7월 22일 완공되었으며, 신진건축사무소가 설계하고 극동건설주식회사가 시공
-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높은 급경사 지붕과 내부공간에 의해 기독교의 수직성을 상징적,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전통적 교회건축 형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조형적 기법을 구사
- 외부에서는 목조구조체와 양쪽 급경사 경사면에 의해 매우 높은 뾰족지붕을 형성하고 내부에서는 매우 높은 천장을 지닌 장방형 평면의 예배당을 형성하였으며 제단 후면에 직각방향으로 장방형 평면의 부속동을 연결
- 예배당 주출입구 상부 삼각형 벽면에는 대형 십자가 형태를 장식하였으며, 제단 후면 벽체 상부에는 전체적으로 삼각형 형태인 스테인드글라스 창이 있었으나 현재는 벽체로 변형된 상태
- 예배당 주출입구 측면에 독립적으로 세워진 종탑은 십자형 평면의 네 방향 벽체가 상부로 갈수록 확장되며 전체적으로 기독교적 의미를 현대적, 조형적, 상징적으로 표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12년 리모델링을 거쳐 2013년 동작아트갤러리로 개관되면서 내외부 일부가 변형되었지만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중이므로 특별히 노후화된 부분 없이 유지관리 상태도 양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본래 소유자였던 공군측에서 공군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건물로서 보존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관리자인 동작구에서도 보존과 현상유지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 동작구에서는 현재 용도인 동작아트갤러리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군관련 종교시설로서 등록사례는 남제주 강병대교회(등록문화재 제38호),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등록문화재 제674호) 등의 사례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동작아트갤러리는 본래 1964년 공군사관학교 상무교회로 완공된 건물로 현재는 보라매공원에서 과거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
- 상무교회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높은 급경사 지붕과 내부공간에 의해 기독교의 수직성을 상징적,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교회건축의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 현대적, 조형적 건축기법을 구사
- 상무교회가 2013년 동작아트갤러리로 리모델링, 개관되면서 일부 변형되었지만, 예배당으로서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보존상태가 양호
- 이상과 같은 역사적, 건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기본적 건축형식과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현재 철거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성무교회 또는 공군사관학교 성무교회

< 000 문화재위원(2018.11.30.) >

1) 개요

- 보라매공원 내 옛성무교회는 미군과 국내 기독교신자 및 학생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종교시설로 1985년 공군사관학교 이전후 서울시가 매입했다. 현재 동작구에서 위탁관리하며 문화시설로 사용하고 있음
- 종교시설로 사용될 당시 공군장교들의 결혼식 장소로 사용되어 공사 이적지에 남아있는 공군사관학교 시설중 가장 추억 어린 장소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예배공간과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공간은 기능에 맞는 독립적인 매스로 구성되었으며, 주출입구 원편에는 종탑이 세워졌음
- ‘A’자형 목구조로 지어, 내부를 무주공간으로 처리했음
- 경사진 구조재 사이에 설치된 횡부재는 경사부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음.
- 내부에는 중2층의 공간이 주출입구쪽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증축된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관은 신축 당시의 모습을 매우 양호하게 갖추고 있으나, 예배공간의 주출입구와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외한 마감재가 변경되었으며 사무공간의 경우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외장과 내부 마감은 변경되었음
- 내부의 제단부는 철거되어 남아있지 않음
- 주출입구 상부에 위치한 중2층은 증축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된 지 50년이 지났으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외견상 물리적 상태도 양호하다고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이 인접해 있으며, 보라매병원의 증축계획으로 인해 철거의 위협에 처했었으나, 옛 사용자와 주민의 요구로 현재는 보존될 가능성이 높음.
- 단, 현재 진행중에 있는 병원 증축의 규모로 보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옛 성무교회를 보존하더라도 주변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종교시설은 자체의 건물 보존도 중요하지만 종교시설이 입지한 원 지형 등도 정체성 유지에 중요하므로, 본 건물의 보존 못지 않게 주변 원지형의 보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문화시설로 사용/관리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공군사관학교 내 종교시설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내 문화단체 및 구민들의 문화시설로서의 활용중인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음.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 내 문화시설로서의 지속적인 활용계획은 현 기능과도 일치하며, 보존계획과 상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옛 성무교회가 갖고 있던 기능 중 종교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장소로 사용되었던 기능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작은 결혼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실에서 주변을 정비하여 결혼식장의 용도로도 사용한다면, 옛 공군사관학교 시절 공군장교들의 결혼 추억이 어린 현 장소의 장소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제안된 활용계획의 실현에는 문제가 없으나,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원 기능의 일부를 회복하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으며, 공군사관학교의 역사적 장소적 가치를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 신진건축사연구소를 운영했던 건축가 최창규의 작품임
- 건축가 최창규는 건축가협회 8대회장을 지냈으며, 1983년부터 최창규선생의 기금으로 양남학생건축상이 제정되어 건축과 졸업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대해 시상되었으나 현재는 시행이 보류되어 있음

- 최창규는 공군사관학교와 육군본부 건설고문을 역임했는데, 본 건물을 지으면서 건설고문을 맡게 되었는지, 건설고문이었기 때문에 본 건물을 설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이 교회는 미공군사관학교 내 교회를 모델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적인 외관의 틀은 닮았지만, 구법과 규모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공간구성이나 구조면에서는 김중업의 설계로 지어진 부산유엔묘지 추모관이 유사함
- 부산 유엔공원 안에 위치한 추모관(옛 교회, 김중업 설계)와 외장 재료는 다르지만 동일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음. 부산 유엔공원 내 추모관은 구조가 외부로 노출되었으나, 옛성무교회는 구조내 내부로 갈무리 된 차이가 있음
- 건축의 구조가 공간이 되고 디자인이 된 건축물로 건축 당시의 건축경향과 우리의 경제현실이 잘 반영된 건축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음
- 특히, 종탑의 조형적 가치는 매우 빼어나며 교회의 가치를 더욱 높여줌.
- 사진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어 원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스테인드글라스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공군사관학교 내 종교시설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공군사관학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증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높으며, 현대 종교건축으로서의 가치도 높음
- 현대건축 1세대에 속하는 최창규선생의 작품이라는 점도 등록문화재 등록의 가치를 더하는 부분이다. 최창규는 작품보다는 글과 건축가협회 활동을 통해 건축계에 족적을 남긴 분으로, 현존 작품은 많지 않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공군사관학교 옛 성무교회

4. 「인천 초연다구박물관」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인천 초연다구박물관」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천 초연다구박물관」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18.11.20.)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심**
- (2) 대상문화재 : 초연다구박물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9번길 8-1 (송학동3가 5-38, 5-39)
 - 용도 : 전시시설(박물관)
 - 소유자 : 박**, 심**
 -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503번길 98, 607동 3004호(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아파트)
 - 수량 및 면적 : 1동(지상2층), 건축면적 54.97㎡, 연면적 109.94㎡
 - 건립시기 : 1932년(상량문), 2014년 증축 및 개보수
 - 구조 : 목조, 벽돌조적조
- (3) 검토대상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OOO 문화재위원(2018.11.20.)**

- 현재 본래 규모에서 확장되고 내외부가 전체적으로 개보수 되면서 건축원형 대부분이 변형되었고 또한 본래 주택으로서의 기본적 건축형식과 공간구성도 상실되었으므로, 등록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8.11.20.)**

-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상당부분 원형을 상실하여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건축물의 보존관리(신축 및 개변, 증축 등) 이력의 누락과 리모델링 당시 (2014년)의 현황조사의 구체적 기록의 부재로 건축물을 가치를 평가하기에 불가한 측면이 있음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8.11.20.)**

- 건립연도를 알 수 있는 상량문 기록 이외에, 건축물의 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 전무하며, 특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상당부분 원형의 모습이 소실되어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원형 훼손으로 등록가치 미흡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초연다구박물관 (구)
2. 용 도 : (현) 전시시설(박물관) (원) 주택(일식가옥)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8-1 (송학동3가)
4. 소유자 : 박영혜, 심상진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벽돌조적조
 - 준공일 : 1932년(상량문), 2014년 증축 및 개보수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건축면적 54.97㎡, 연면적 109.94㎡
 - 층수(높이) : 지상 2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2018.11.20) >

1) 개요

- 초연다구박물관은 본래 1932년 건축된 일식 목조주택을 2004년 증축, 리모델링하여 개관
- 초연다구박물관이 위치한 송학동 지역은 본래 개항기부터 외국인 주거지를 형성하였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주거지를 형성.
- 현재 초연다구박물관 주변에는 초연다구박물관으로 증축, 개보수 이전 본래의 일식 목조주택과 동일한 형식의 일식 목조주택이 몇 동 남아 있으나 대부분이 빈집이고 노후화, 훼손상태가 심각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본래 2층 규모의 일식 목조주택으로 상량문에 의하면 1932년 건축되었으며, 2004년 증축, 개보수하여 다구박물관으로 개관
- 2004년 증축, 개보수 당시 본래의 규모에서 확장되고 내외부가 전체적으로 개보수되면서 주택으로서의 기본적 건축형식과 공간구성이 상실되었고 건축원형도 대부분 변형된 상태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04년 증축, 개보수 당시 주택에서 박물관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건축원형 대부분이 변형된 상태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인천 개항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다수의 근대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소유자는 다구박물관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다수의 일식주택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비해 초연다구박물관은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매우 부실하고 본래의 주거기능도 상실.
- 7) 등록가치의견
 - 초연다구박물관은 본래 2층 규모의 일식 목조주택으로 상량문에 의하면 1932년 건축되었으며, 2004년 증축, 개보수하여 다구박물관으로 개관
 - 현재 본래 규모에서 확장되고 내외부가 전체적으로 개보수되면서 건축원형 대부분이 변형되었고 또한 본래 주택으로서의 기본적 건축형식과 공간구성도 상실되었으므로, 등록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11.20) >

- 1) 개요
 - 본 건물은 옛 일본인 거주지(산수정->해방후 송학동)에 위치하며 현재는 일반 주택지로 2014. 10. 28일부로 용도변경 및 증축신고를 하였음
 - 본래 2층의 목조 마차야이였지만 일부 2층을 증축을 하여 작은 박물관(초연다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일본식 목조건축
 - 건물 리모델링 당시(2014) 상량문으로 보이는 팻말이 발견되었음(소화7년, 1932년)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상당부분 원형을 상실하였으며 건축물의 외부 벽체 및 창호의 개변이 심하고 실내공간도 거의 원형을 상실하였음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문화재로써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다구박물관으로 활용은 활용 방안으로써 양호하다고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이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다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기타사항

- 다만 건축물은 원형복원의 측면에서 원형 상실이 많고 이를 되돌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상당부분 원형을 상실하여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건축물의 보존관리(신축 및 개변, 증축, 등) 이력의 누락과 리모델링 당시(2014년)의 현황조사의 구체적 기록의 부재로 건축물을 가치를 평가하기에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인천 송학동 일식주택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11.20.) >

1) 개요

- ‘초연다구박물관’은 최초 1932년 건립된 일식가옥으로 2014년 현 소유주가 매입하여 다구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 외부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리모델링 과정 중 지붕가구에 부착된 나무판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奉上棟式’, ‘昭和七年十月吉祥’)이라 기록된 상량문이 발견되어 건립연대를 확인할 수 있음.
- 동 건축물이 위치한 인천시 중구 일대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조계지역으로 당시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위해 동일한 형식으로 지어진 일식가옥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일부 가옥들을 통해서 당시의 흔적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음.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2014년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입면의 파사드를 포함하여 내, 외부 마감재 및 일부 내부 구조체 등에서 적지 않은 변형이 있어 현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원형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없음. 다만, 지붕가구는 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밖에, 현재 최초 건립된 2층 일본가옥에 유사한 규모의 2층 조적조 건축물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언제 증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최초 건립된 일식가옥은 남북방향을 장변으로 하여 북쪽 단변에 현관을 두었고 그 전면으로는 규모가 작은 마당 겸 정원을 조성하였음.
- 현관을 들어서면 우측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현 소유자에 의하면 1층은 접객을 위한 거실의 용도, 2층은 가족들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함.

- 현재, 2층 바닥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 이전에도 현재와 같은 다다미가 있었다고 하며, 1층 천정에는 원형의 것으로 보이는 마루 장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지붕은 현재 골함석으로 마감하였으나, 본래는 지붕가구 상부에 개판을 깔고 그 위에 일식기와를 얹었을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14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내, 외부에 걸쳐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외관에서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일식가옥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동 지역이 인천시 중구 문화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근대유산으로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근대유산으로 보존,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다구박물관으로 활용하고자 하고자 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다구박물관의 기능으로 활용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 외관 및 형태 등에서 이미 원형의 모습을 상실하였으므로 근대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식가옥이 등록문화재로 보존, 관리 되는 사례는 부산, 군산 등 과거 개항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이들과 비교할 때 원형보존 상태 등에서 그 가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건립연도를 알 수 있는 상량문 기록 이외에, 건축물의 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 전무하며, 특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상당부분 원형의 모습이 소실되어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광주 금선사 대응전」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광주 금선사 대응전」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금선사 대응전」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18.3.5.)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학교법인 정광학원
- (2) 대상문화재 : 광주 금선사 대응전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공원로 8-23
 - 용도 : 종교시설
 - 소유자
 - 건물 : 학교법인 정광학원
 - 대지 : 산림청(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소유자 동의서 제출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62.23㎡, 연면적 62.23㎡
 - 건립시기 : 1941년
 - 구조 : 일식 목조
- (3) 검토대상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OOO 문화재위원(2018.3.5.)**

- 광복 후 국내에 있던 대부분의 신사는 사라졌으나 특이하게 광주 송정신사는 배전, 사무소, 봉등, 석탑, 진입계단, 진입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 그중 일부가 금선사 사찰로 개조되어 활용되고 있는 중
- 금선사 대웅전은 과거 송정신사 창립 당시 1941년 건축된 배전을 1948년경 금산사 법당으로 개조, 증축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정면 7칸, 측면 2칸, 장방형 평면, 기와 박공지붕 형식의 일식 목조건물로 중앙부 3칸은 솟을지붕을 형성
- 금선사 대웅전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유래와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신사참배의 직접적 대상이었다는 국민적 반감이 존재하고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현재 광주시에서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를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등록가치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여야 함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8.3.5.)**

- 금선사 대웅전이 기 등록문화재와 달리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다수 설치되었던 신사 건축을 단순히 불전으로 변경, 사용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재로서의 등록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OOO 군산대학교 교구(2018.3.5.)**

-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목조 구조체 및 공간 구성이 보존될 필요가 있음
- 다만,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하는 목적에는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측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금선사 대웅전의 경우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이 오히려 해당 유산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고증자료 보완(신사 원형 등)
- 토지 소유 관계 명확화(소유자 동의 등)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금선사 대응전 (구) 송정신사 배전
2. 용 도 : (현) 종교시설(사찰 법당) (원) 종교시설(신사 배전)
3.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공원로 8-23
4. 소유자 : 건물-정광학원 / 대지-산림청(영암국유림관리소)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일식목조
 - 준공일 : 1941년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건축면적 62.23㎡, 연면적 62.23㎡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2018.03.05) >

1) 개요

-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는 식민통치와 전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자 일본 조상과 왕을 모시는 신사를 각지에 건립하고 강제로 참배하도록 강요하였으며 1930년대 중반부터 더욱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
- 일제강점기 당시 광주지역에는 광주신사, 송정신사 등이 설립되었으며, 현재의 금선사(金仙寺)는 광복 이후 과거 송정신사의 일부 시설을 사찰로 개조하여 현재까지 활용 중
- 송정신사(松汀神社)는 다이쇼(大正) 11년(1922년) 설립된 신명신사(神明神祠)가 있었던 장소인데, 쇼와(昭和) 15년(1940년) 신사본청(神社本廳)에 사격(社格)의 승격을 출원하여 신명신사가 폐지되고 송정신사로의 승격을 승인받아 설립
- 송정신사는 광주 금봉산(金鳳山) 자락에서 쇼와 16년(1941년) 4월 17일 창립되어 제신(祭神)은 이전 신명신사와 마찬가지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모시고 매년 10월 11일 예제(例祭)를 행사
- 과거 송정신사에는 참배 대상을 모신 신전(神殿), 참배를 하는 배전(拜殿), 칸누시의 사무소(神主事務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신찬소(神饌所) 등 총 4개의 건물이 존재
- 현재 과거 송정신사의 흔적으로서 일제강점기 당시의 배전, 사무소, 봉등, 석탑, 진입계단, 진입로 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중 일부가 금선사 사찰로 개조 활용되고 있는 중
- 그동안 광주시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일제잔재로서 당연히 철거라는 의견과 과거의 아픈 기억과 교육을 위해 존치 필요라는 의견이 양립하였으며, 2018년 광주시에서는 광주시 친일잔재조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중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광복 후 국내에 있던 대부분의 신사는 사라졌으나 특이하게 송정신사는 배전, 사무소, 봉등, 석탑, 진입계단, 진입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 일부가 금선사 사찰로 개조 활용되고 있는 중
- 과거 배전과 사무소가 금산사로 개조,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 사무소는 종무소 및 요사채로 개조되면서 내외부가 많이 변형되었지만, 대웅전으로 개조된 배전은 건축원형의 흔적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
- 송정신사 창립 당시 1941년 건축된 배전을 1946년 설립된 정광학원의 일부 학생들이 광복 후 불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48년 지역 유지들이 건물을 중수하고 금선사 교당으로 창립
- 금선사 대웅전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정면 7칸, 측면 2칸, 기와 박공지붕 형식의 일식 목조건물로 중앙부 3칸은 솟을지붕을 형성하고 양측 2칸은 지붕을 낮게 형성하였으며, 외벽 일부에 격자창과 목조 판벽을 설치
- 내부는 통간(通間) 형식으로 장방형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후면 벽체 중앙에 불단을 설치한 중앙부 3칸은 상부에 우물반자 천장을 높게 형성하였고 양측의 2칸은 종이반자 천장을 낮게 형성
- 평면은 본래 신사 배전 당시에는 중앙부 3칸이 전면으로 돌출된 형태였으나 1948년 금선사 법당으로 개조되면서 양측면 전면부와 중앙 후면부가 채워지는 형식으로 증축되고 중앙 후면부에 불단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일식목조로서 기본적 건축형식은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식 격자문 형식의 주출입문이 강화유리 자동문으로 변형되고 외벽 일부, 내부바닥, 창호 등이 개수, 변형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일제잔재로서 철거라는 의견과 과거의 아픈 기억과 교육을 위해 존치라는 의견이 양립중이고 또한 금선사측에서는 건물만 소유하고 대지는 영암국유림관리소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속적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 사찰 측에서는 법당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일본신사의 등록문화재 사례로는 소록도 갯생원의 과거 흔적을 보여주는 다수의 등록문화재에 포함된 고흥 구 소록도갯생원 신사(등록문화재 제71호)가 유일한 사례
- 일본 종교관련 시설로 등록된 사례는 일식사찰로서 군산 동국사 대웅전(등록문화재 제64호),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등록문화재 제340호), 목포 정광정혜원(등록문화재 제696호)이 있고 일식교회로서 구 목포 일본기독교교회(등록문화재 제718-6호)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광복 후 국내에 있던 대부분의 신사는 사라졌으나 특이하게 광주 송정신사는 배전, 사무소, 봉등, 석탑, 진입계단, 진입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 그중 일부가 금선사

사찰로 개조되어 활용되고 있는 중

- 금선사 대웅전은 과거 송정신사 창립 당시 1941년 건축된 배전을 1948년경 금산사 법당으로 개조, 증축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정면 7칸, 측면 2칸, 장방형 평면, 기와 박공지붕 형식의 일식 목조건물로 중앙부 3칸은 솟을 지붕을 형성
- 금선사 대웅전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유래와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신사 참배의 직접적 대상이었다는 국민적 반감이 존재하고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현재 광주시에서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를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등록가치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여야 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광주 금선사 대웅전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3.5) >

1) 개요

- ‘금선사 대웅전’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1941년) 이곳에 건립된 ‘송정신사’의 부속건물(배전)을 사찰(불전)로 고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관련기록(光山郡松汀邑金仙教堂創立記)에 의하면, 해방 후 학교법인 정광학원(1948년 창립)과 지역의 유지들이 송정신사의 건물을 수리하여 ‘금선사 교당’을 창립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음.
- 당초, 송정신사 내에는 ‘본전’을 비롯하여 ‘배전’, ‘사무소’ 등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이중 배전과 사무소를 금선사의 대웅전과 요사채로 사용.
- 또한, 오늘날 금봉산 남쪽 끝자락에는 일제강점기 송정신사와 함께 만들어진 ‘참계’와 ‘도리이’가 있었으나 해방 후 철도가 부설되는 과정에서 소실됨.
- 송정신사의 배전을 대웅전(불전)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평면상의 변화는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목조의 가구(架構)는 본래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신사 건축 중 유일한 목조건축물로 전해지고 있음.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현재, 금선사 대웅전은 정면7칸×측면2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으로 지붕가구는 7량 구조의 맞배지붕을 구성하고 있음.
- 전체적인 지붕 형태가 솟을대문과 같이 중앙부를 양쪽 단부에 비해 높게 하였는데 이러한 구성수법은 일본에 현존하는 신사의 배전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금선사 대웅전이 이러한 입면 형태를 보이는 것은 송정신사의 배전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밖에, 인방 및 방형 서까래 등 용재(用材)의 사용 수법과 결구방식 등에서도 일본 전통목조건축의 양식적 특징 등을 살펴볼 수 있음. 또한, 현재 대웅전 중앙에 방화유리문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였는데, 관계자에 의하면 본래는 커다란 일본식 미서기 격자문이 있었다고 함.

- 대응전 내부의 주방배치와 지붕가구의 구성을 보면, 일반적인 목조건축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신사의 배전 건물을 불전으로 고쳐 짓는 과정(즉, 신사의 목조 뼈대를 그대로 두고 예불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불전으로 고쳐 짓는 과정 중 건물의 내,외부에서 적지 않은 원형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특히, 건물의 정면 좌우측과 배면 중앙측에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붕 형태의 변화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불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내부 공간의 창호 및 내부 벽체 및 바닥 마감재 등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사찰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정광학원 측에서도 상징적,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보존,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정광학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금선사 대응전과 같이 신사 건물을 불전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음. 다만, ‘군산 동국사 대응전(등록문화재 제64호)’, ‘구 동본원사 목포 별원(등록문화재 제340호)’ 등과 같이 일본 전통건축양식으로 건립된 불전 건물과 소록도 내 한센인과 관련된 특수한 역사적 배경속에서 건립된 것으로 평가된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신사(등록문화재 제71호)’가 등록된 사례는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금선사 대응전이 기 등록문화재와 달리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다수 설치되었던 신사 건축을 단순히 불전으로 변경,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기존 사례와는 차별화된 관점에서 문화재로서의 등록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광주광역시 금선사 대응전」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000 군산대학교 교수(2018.03.05) >

1) 개요

- 금선사 대웅전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송정신사의 배전 건축물로서 시멘트로 조성된 기단 위에 원형 초석과 원기둥을 세웠고 인방과 보, 도리를 올려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일제강점기 동안 전국 각지에 지어졌던 대부분의 신사가 광복이후 멸실되었고, 구 송정신사를 구성하던 본전 등의 건축물과 구성 요소들이 사라지고 변형되었으나 이 건축물은 금선사 대웅전으로서 현존하고 있음. 일정 부분 증축으로 인하여 변형되었으나 신사 건축의 원형이 부분적으로 남아 유지, 관리되어 왔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일본식 신사의 배전 건축물로서 현재 송정공원의 남측에 존재하는 계단 유구로부터 시작되어 송정공원 내의 주차장을 지나 종무소를 거쳐 배전에 이르게 되는 배치 계획상의 특징을 갖고 있음.
- 1946년 송종헌 스님이 세운 정광학원의 학생들이 기존 송정신사의 배전을 불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와 같이 불교 건축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48년 정광학원과 지방 유지들에 의해 건물이 중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대웅전은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평면의 건축물로 중앙 3칸의 지붕이 높게 솟아오른 솟을지붕 형식의 건물임. 내부공간은 중앙에 기둥 열을 둔 통칸 형식으로 처리되었고 후벽 쪽에 불단을 두고 석가모니불을 모셨음.
- 천장은 우물반자를 설치하였고 바닥은 장판을 깔았음. 정면 주출입구는 미서기 격자문이었으나 현재는 강화유리문으로 변형되었음.
- 홀처마 지붕으로 서까래는 사각형 단면의 일식 서까래가 사용되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는 완전한 一자형의 평면이나 본래의 평면은 중앙 3칸이 전면으로 돌출된 형식의 평면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1948년 중수 과정에서 정면 방향의 좌우 측면과 배면 방향의 중앙부가 증축되어 현재와 같은 평면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주출입구의 문과 창호, 지붕 마감재, 바닥 마감재 등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금선사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는 송정공원에는 현충탑과 박용철 시인의 시비, 국창 임방울 선생 기념비, 의병장 이기손 장군 의적비 등 많은 충혼비가 산재해 있고 송정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물리적인 보존 환경은 양호함.
- 다만, 지역에서 신사에 대한 철거 논의가 2004년에 있었고 최근에도 일제 잔재에 대한 처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철거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와 같이 종교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소유주인 정광학원과 관련된 시설로서의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등록문화재를 구성하는 다수의 건축물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학교, 관공서, 주택, 사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신사 건축물로서는 구 소록도 갱생원 신사가 소록도의 한센병 관련 유적과 연계되어 등록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어 금선사 대응전과는 차이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하는 목적에는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측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금선사 대응전의 경우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이 오히려 해당 유산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목조 구조체 및 공간 구성이 보존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금선사 대응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보 고 사 항

6. 소위원회 결과 및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 157호 「환구단」 및 사적 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 현상변경-

가. 보고사항

사적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환구단」 (사적157) 및 「서울 한국은행 본관」 (사적280)	서울 중구	(주) 부영 주택	<p>(1) 허가 받는자 : (주)부영주택 최양환</p> <p>(2) 허가내용 : 호텔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9번지 일원 ○ 세부내용 : 호텔 신축 (세부 설계도서는 별도 승인예정) <p>(3)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착공전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1주일 간격으로 문화재(환구단) 구조안전 계측을 시행하고 동 계측 결과에 대한 구조안전 이상 유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월단위로 서울 중구청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함 - 이와 관련 계측기는 목조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1개소는 변위에 취약한 내부의 상부지점에 설치 ○ ‘대관정 터’유구 전시와 관련된 사항은 ‘유구 보존 적정성 합동(매장분과, 근대분과) 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름 ○ 2018년 제4회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심의안(1안)으로 함 - 소공로 근대건축물(유구)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스트리트 뮤지엄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 조성 	조건부 허가	‘18.11.21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p>하되 설계안은 문화재청 승인 후 시행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는 주변의 사적(환구단, 서울 한국은행 본관) 보호에 유념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p>(4) 허가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2.10 ~ 2021.12.31 <p>[참고]<2018년근대분과 소위원회(4차) 심의 결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8.11.30(금) ○장소 : 덕수궁관리소 회의실 ○참석 : 문화재위원 5명, 전문위원 2명 ○결과 : 조건부 가결 -심의안 1안으로 함 -근대건축유구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스트리트뮤지엄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 조성하되 설계안은 문화재청 승인 후 시행 할 것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는 주변의 사적(환구단, 서울 한국은행 본관) 보호에 항상 유념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 </div>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